

기독교와 경제정의

Christian Perspective of Economic Justice

이 재 울

I. 머리말

한국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업국에서 30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중진공업국으로 탈바꿈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GNP 성장을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빈곤 수준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분배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 결과, 현저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불평등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종 투기로 이어져 불평등을 확대, 심화시키고, 과시적 소비, 향락산업의 번창 등 한국사회 모순의 근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와 소득의 분배의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빈번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분배상태가 부정의 하다는데는 거의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개입없는

자유시장의 분배를 주장하는 이도 있고, 기회균등과 최저생활보장을 강조하는가 하면, 가장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분배의 기준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성을 최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철학으로서의 상대주의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신앙에 기초한 절대적 정의에 입각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¹⁾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적 부정의를 해결해 나갈 근본원리를 제시할 것이다. 물론 성경이 자세한 분배질서나 제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질서의 구축에 있어서 따라야 할 지도원리를 제시해 준다. 그 지도원리는 (1)조건부 사유재산권, (2)인간의 필요충족의 중시, (3)상대적 평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에서 세 원리에 대해서 상술하기로 한다.

II. 조건부 사유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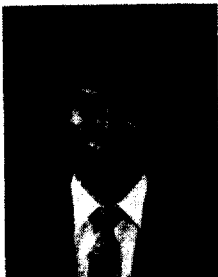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절대시 한다. 사유재산권을 최초로 정당화한 학자는 John Locke인데²⁾ 그는 자연은 신이 인간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서 부여한 공유물이라고 보고 이 공유물이 모든 공유자들의 계약이나 동의없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가를 논구하였다. 그는 그 근거를 자연에다 인간의 노동을 혼합한 데서 찾았다. 노동은 그 개인의 소유이므로 노동이 부가된 대상도 그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Locke는 사유화에 있어서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하였다. (1)타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충분하고 좋은 공유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 (2)사물이 손상되기 이전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화폐의 유통과 함께 두번째 단서의 의미는 소멸되어 버렸으므로 문제는 첫번째 단서의 해석이다. 이 단서를 '타인들이 전과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약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이 정당화된다. Nozick은³⁾ 이런 입장에 서서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단서의 의미를 '타인들에게도 그만큼 많은 토지를 남긴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지구상의 토지가 모두 사유화 되는 순간 모든 사유화는 단서위배가 되며 공유물의 소유권은 다시 공동체로 귀속되고 단지 자신의 노동의 부가가치만이 그 개인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어떠한가? 성경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십계명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유재산을 전제한 명령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토지를 재비뺏아 공정하게 분배하였다(수 14:2). 예수님

도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듭 경고하였으나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Brunner는 사유재산이 자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그는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타인들의 허락에 의존하고 있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들은 그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재산이 없으면 자유로운 인격적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이 없으면 행동할 힘이 없는 것이다."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은 자유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독교는 종교, 사상, 양심, 신체 등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며, 그 맥락에서 다른 자유의 구체적 표현의 기초인 사유재산제를 지지한다. 재산이 전연없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며, 집단적 소유제는 개인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기 십상이다.

문제는 사유재산권을 절대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만 이루어지면 어떠한 불평등도 정당화 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을 성경은 어떻게 비판하는가? 성경은 거듭 인간은 모든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천명하고 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23)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보유,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절대적 재산권을 성경은 부정한다. 부는 궁극적 소유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즉 사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되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제약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인 것이다. 그리



필자소개

이재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 기독교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방법보다 부의 재분배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Ⅲ. 필요충족의 증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자원배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모든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기호에 따른 투표(수요)를 하는데 따라 생산자들이 수요가 많은 것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무엇을 구입할까?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재화일까? 아니면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를 살 것인가? 필요(needs)와 욕망(desires, wants)은 어떻게 다른가?

Bentam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하에 두었다."⁵⁾ 고 하며 심리학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심리학적 명제로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규범적 명제를 도출해 낸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입법가의 목적은 각 개인의 쾌락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A. Smith를 계승한 경제학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쾌락)을 극대화 하도록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의해 사회적으로 쾌락이 극대화 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다. 가난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얻는 효용(쾌락)과 부유한 사람의 방탕에서 얻는 효용사이에 전혀 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효용이 전자보다 더 크다면 소득을 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해야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요가 아니라 쾌락(욕망의 충족)을 극대화하려는 체제인 것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욕망의 덩어리로 보고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인간의 유일한 행동 동기로 파악한다. 이것은 Hobbes적인 유물론적, 기계론적 인간관에 의거한 것이다. 인간 본질의 일부를 전제로 본 오류가 지적될 수 있겠다. 인간주의 심리학은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⁶⁾ "만일 공리주의적인 쾌락 원리가 인간 행동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고 인간행동의 일부를 설명할 따름이다. 행동주의자들이 한 것은 인간행위의 일부를 전제로 확대시킨 것이었다. 인간의 본질의 다른 부분이 있음이 틀림없다. .. 인간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존재, 다시 말

하면 영감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⁷⁾ 인간주의 심리학은 Maslow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필요의 위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자아의 발전과 성숙을 의미한다. '필요'란 곧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에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필요의 5단계를 제시했는데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리적 필요(의, 식, 주); (2) 안전과 보장의 필요; (3) 소속감의 필요(의미있는 사회관계); (4) 자존심 및 타인 존중의 필요; (5) 자기실현의 필요.

이들 중 (1),(2)는 물질적 필요, (3),(4)는 사회적 필요 (5)는 도덕적 필요이다. 결국 경제가 담당해야 할 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실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필요는 욕망과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며,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위의 (1),(2)에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4),(5)에도 물질이 필요하다. 어떤 사회이든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생산력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한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의식주, 보통교육, 건강)는 누구에게나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기본적 필요들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⁸⁾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누누히 표시하고 있다. "너의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줌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19:10)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삶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점에서 존엄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어떤 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human basic needs)는 능력의 유무, 노력의 유무, 신분, 성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서 도시빈민, 장애인, 고아와 양로원의 노인들의 복지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빈곤을 해소하는 이 과업은 개 개인의 자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분배제도 개혁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경제의 목표를 필요충족에 두지

않고 쾌락 극대화에 둔다. 부를 인간완성의 물질적 조건으로 보지 않고 행복의 원천으로 본다. 성경은 결코 부를 행복의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행복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의 관계에 있으며, 물질은 인간의 자기실현, 하나님의 형상의 실현의 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지나친 불평등은 욕망과 필요를 더욱 과리시킨다.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려면 심한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상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1951년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지도원리가 사적 이윤임에 반해 사회주의의 지도원리는 인간적 필요의 충족이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생산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자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⁹⁾

IV. 상대적 평등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평등으로부터 출발한 평등주의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법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마침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평등의 유형도 완전평등, 기본적 필요충족의 평등, Rawls적인¹⁰⁾ 상대적 평등 등 여러가지가 있다. 완전평등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완전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분배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인센티브의 결여로 말미암아 생산총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III절에서 본 기본적 필요의 충족은 여기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Rawls는 계약론적 방법에 의해서 최빈자 우대(Maximin)의 원리를 도출해 내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성서는 왜 불평등을 배제하고자 하는가? 첫째,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광범위한 대중들의 빈곤을 초래한다. 빈곤은 성서가 경제문제중 가장 중시하는 문제이다. 둘째, 불평등은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압제와 수탈을 가능케 한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노예로 전락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질주의, 이기심, 탐욕을 조장하고 또한 비굴, 시기심을 유발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거듭 가진자들의 압제와 수탈을 고발하였던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세째, 부자들의 부는 공유물인 자연의 독점, 착취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정당성이 없는 부문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그래서 성서는 지나친 불평등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초의 토지의 평등분배(수14:2), 안식년과 회년제도(레25:10) 등은 생산수단의 주기적 평등 재분배를 통해서 비교적 평등한 경제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개인의 노력에 따른 차등은 인정한다. 개인의 도덕적 자유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V. 결 론

성서가 제시하는 경제적 정의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우선적으로 가난을 해소하는 작업, 즉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것이 요청된다. (2) 사유재산권의 보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이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해야 되는 권리이다. (3) 불평등은 노력의 차이등을 반영하는 선에서 최소화 되어야 한다. 지나친 불평등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위의 성서적 지도원리는 한국의 현실문제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간관에 입각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성서적 정의관의 더 깊은 천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H.H. 바네트 (최봉기역:1988), <기독교윤리학 개론>, 집례신대출판부
2. P.마살 (한화룡역:1989), <기독교세계관과 정치>IVP
3. 양호민 편역 (1985), <사회민주주의>, 종로서적
4. J.Bent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 (이성근역 :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 휘문)
5. N.Bowie(1971), Distributive Justice, University of Massachussets Press.
6. E.Brunner(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Latterworth Press.
7. J. Locke (1970), P.Laslett(ed).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Press
8. R. Nozick (1974), Ana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9. M.A.Lutz and K.Lux (1988), The Humanistic Economics, The Bootstrap Press.
10. J.Rawls (1973).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1986), <사회정의론>, 서광사
- Social Order, Lutterwork Press. p.17참조
- 2) John Locke (1970, P.Laslett(ed)),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Press. ch.4. "Of property" 참조
- 3) Robert Nozick (1974), Ana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7. "Distributive Justice"참조
- 4) Emil Brunner, op.cit. p.58
- 5) J.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 (이성근역 :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 휘문)
- 6) M.A.Lutz and K.Lux (1988), The Humanistic Economics, The Bootstrap Press. ch.2 참조
- 7) ibid. pp.8-9
- 8) N.Bowie (1971), <Distributive Justice>, University of Massachussets Press, ch.IV 참조
- 9) 양호민 편 (1985), <사회민주주의>, 종로서적, p.289
- 10) J.Rawls (1973),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역(1986), <사회정의론>, 서광사

주(註)

- 1) Emil Brunner (1945), Justice and the